

“ 변화는 좋으나 변질은 안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복음화된 통일조국이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이 땅의 빛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어 온 세상에 복음 선교의 교두보로 삼으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살아갈 미래의 시민상은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불변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향한 진군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이 행진을 더욱 힘차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합쳐 추진해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은 한국 교회 갱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일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캐뎀으로 자기 변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공장을 세웠는데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 환경오염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대기 오염으로 사람들이 호흡조차 힘들게 되었다면 공장 건설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보수와 변화야 산다는 진보가 팽팽하게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 각층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개념은 충돌 개념보다는 상호 보충개념이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다 함께 헌법을 보수해야 한다. 그 헌법의 표준화에 변화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는 보수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 아래 예배도 교육도 전도도 봉사도 해야 한다. 문제는 입으로는 헌법을 인정하나 실은 반헌법적 행동을 하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행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강단에서 읽고 성경 이야기는 설교라는 틀 속에서 외치고 있으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교인수 증가를 목표로 교세 확장에 더 치중을 했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적 추세와 젊은이를 위함이라는 명분만으로 변질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직선만 굽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뜻대인 성경만을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사관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기 때문에 더욱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받은 면류관을 벗어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눈에 들 수 있는 바른 주의 청지기로 변화시켜 달리게 함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도록 성경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질된 교회는 고쳐주소서.

-한국장로신문 [제 1364호] 2013년 4월 27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새로 강화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존중하여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
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
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802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혜(캐나다),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병성(총회), / 이삭, 비스파라, 사지, 에베(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버샤, 알로롱, 비사누밴도, 보디소프, 린롱, 수린준(벵골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일(필리위),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미디카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묘목에서 거목으로! ”

■ 엡 4:11-16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일을 벗어나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안고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령한 자로 성숙케 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젖이나 먹으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 영적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살면서 직면하는 위기들은 실제적이고 명백한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영적 아비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11, 12절) 흔히들 교회의 수준은 담임목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교회가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이 있다면 이 교회를 이끌어난 지도자의 수고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명성이 실추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지도자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돌봄을 잘 받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묘목에서 거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돌봄의 손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위험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2. 정결한 삶을 추구하라

영적으로 묘목에서 거목이 되려면 목자의 돌봄을 따라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주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도는 거룩한 삶과 밀접합니다. 거목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심령을 불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철결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벧전 1:15-16)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나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5-10).

3.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좇아가고 성령 안에서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큰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14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신령한 자들이요 지혜롭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이 사는 자연인들처럼 행동하며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맺는 말

영적 돌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부정된 것을 버리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육신의 경향에 순복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시기 다름을 일으켰던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오직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나그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며 행복해하는 성도, 궁궐 같은 집을 짓는데 쓰임을 받는 거목들이 모인 서울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전재홍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7(시 29)...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73(7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3:5-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빛”...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331(37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1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5:1-2 인 도 자
 찬 송 304(40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수 4:1-9 인 도 자
 설 교 “열두 돌” 인터넷 영상
 찬 송 310(410)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 임
 1. 경기당회 / 8월5일(수) 오후 7시 104호
-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 결 혼
 1. 오영석 군 (16교구 오천수 집사, 서경자(서정형) 집사의 장남)과 이혜리 양 (이성남, 박수자 씨의 장녀) / 8월8일(토) 오후 3시 플로팅아일랜드컨벤션(02-537-2440) / 3호선 고숙터미널역 6번 출구 앞 셔틀버스 이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11명	251명	1,462명	1,773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7/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26일	헌 금	36,718,000	
	말씀봉사비		26,947,000
	찬양대사례비		13,920,000
	급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7,870,000
	찬양운영비		7,140,000
	교회학교운영비		707,900
	선 교 비		100,000
	출 판 비		1,210,000
	복리후생비		164,700
	통 신 비		851,370
	수도광열비		2,200
	차량유지비		771,900
	환경유지비		61,600
	식당운영비		425,640
	합 계	36,718,000	93,256,31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